

# 넘지 못할 ‘고개’ 따위는 절대로 없다

2018 한일교류단 스게유크 여자부장 (대구 1방면 교류)

저는 신심 강성한 부모님 슬하에서 신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회합 날 약속을 잡거나 일부러 더 일을 하면서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전환점이 된 것은 스무 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6미터를 날아가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의식불명의 증상을 입고 응급실로 실려 왔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 왔을 때 의사는 뇌의 타박상과 두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오늘밤이 고비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지금이야말로 신심을 의심하지 말고 제목을 올릴 때다’라고 정하고 맹렬히 제목을 부르셨습니다.

소속의 동지 분들도 밤새도록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3일 만에 의식을 되찾고 일주일째는 기억도 되돌아 왔습니다.

‘모두 유코를 위해 제목을 불러주었다’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학회는 어쩔 이렇게 따듯할까 하고 평평 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불가사의하게도 이케다 선생님의 서적과 세이쿄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안면마비로 얼굴의 반이 움직이지 못하고 머리를 다친 탓에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등 여러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케다 선생님의 말씀과 어서, 동지들의 체험담을 접한 것이 무엇보다 재활치료가 되었고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로부터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것들과 보는 것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했고 이케다 선생님께 보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여자부활동에도 면려했습니다.

동지 분들과 만나면서 낮가림과 홍조현상을 극복했고 학회와 신심의 훌륭함을 알리기 위해 우인 절복에도 도전, 친한 우인에게 어본존 유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바빠 좀처럼 활동할 수 없는 시기도 있었지만,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저를 만나주면서 싫은 내색 한 번하지 않았고 계속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도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장문제로 고민할 때에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곳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격려해주셨고,

저는 일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불가사의하게도 부서를 이동하면서 학회활동도 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 반 전에 구마모토 총현 여자부장으로 사명을 받은 2016년 4월 14일 강도 7.0의 지진이 구마모토를 덮쳤습니다.

4,000여회의 여진과 진도7.0의 지진이 두 번 연속 일어나는 속에 사망자 267명과 약 20만 명이 피난생활을 해야 하는 대규모 재해로 번졌고,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지진의 공포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으로 잠들지 못하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도 피해를 입어 가족 모두가 차로 피난을 갔고 여자부 한 사람 한사람의 무사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뒤 집근처 회관으로 가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돌보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 곧바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회관에서 식사를 배급하는 등 날마다 언제자고 언제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필사적인 나날이었습니다.

집 근처 회관에는 500여명이 피난을 와있었는데 물이 부족한 탓에 학회원집 우물에서 남자부가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 교대로 밤새 화장실 담당을 하면서 고령자분들을 도와주는 일이 가장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진이 난 지 일주일 뒤에는 진앙지인 마시키란 곳에 멤버를 만나러 갔습니다. 콘크리트 도로가 솟아올라 있었고 주택가는 대부분 무너져 내려 2층집은 거의 1층 부분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난 아소지역의 경우 산과 산을 잇는 아소대교가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때문에 붕괴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도로가 봉쇄된 상태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케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구마모토의 동지들에게 수필을 써 주셨습니다.

“우리 구마모토동지여, 세계제일의 용기와 동지애로 선구로 달리는 위대한 큐슈의 왕자들이여, 절대로 지지마라. 지금이야말로 불요불굴의 각오로 싸워라” 라고.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닌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용기와 희망의 활력이었습니다. 스승이란 이토록 감사한 존재구나 하고 다함께 눈물을 흘리며 복구와 부흥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전국 전 세계의 동지들로부터 제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받으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한 도호쿠 동지들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응원해 주는 말에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도, 지진이라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도 ‘스승과 동지가 제목을 보내준다, 학회는 정말 기적의 단체다’라는 것을 실감했고, ‘초토화된 거리에서 반드시 일어서고 말겠다. 선생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겠다’며 굳게 서원했습니다.

그 뒤 전기나 수도, 통신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자 가장먼저 각지의 멤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다함께 부동켜안고 무사함을 기뻐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를 할 때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신심해서 정말 다행이다, 신심으로 수호 받았다’라고 했고, 누구 한 사람 신심을 의심하지 않는 모습에 오히려 이 지진이 있었기에 한 사람 한사람이 신심의 절대적 확신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느꼈고 이러한 구마모토 여자부들의 순수한 신심에 저 또한 많은 신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어본존님 앞에서 여자부 여러 명이 함께 앉아 근행을 할 때에는 마치 몸에 피가 도는 것처럼 제목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면서 크게 감동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재난을 극복한 지 2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케다 선생님께서는 소셜 신·인간혁명 ‘승리의 함성’ 장에서 구마모토 지도를 가졌을 때의 상황을 써 주셨습니다.

소셜 신·인간혁명에 등장하는 아소 시나누코회관은 당시 전국에서 유일한 여자부회관으로 구마모토 여자부와 이케다 선생님의 사제의 원점이 새겨진 회관입니다.

지금 다시한번 선생님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지구간부이상이가 날마다 선생님께 감사의 보고서를 올리고 서원을 담아 여자부들의 결의의 서명도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신입회원은 ‘이케다 선생님을 가깝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활기차게 말하는 등 각지에서 잇달아 환회에 넘치는 절복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창가사체에 있어 넘지 못할 고개는 없다’는 확신으로 선구의 큐슈, 불의 나라 구마모토에서 환회의 스크럼을 넓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